Yongin Culture Magazine

용인문화

2009. 겨울 vol 11

용인문화원

외 출

김 삼 주

늦가을, 가슴을 비우기 시작한
팔랑개비 바람은
달랑 나뭇잎 한 장 남겼다

生死를 울리던 목마름
젖은 마음을 사랑했던,

삭정이보다 늘어진
퀭한 시선이 허공을 가르고
길 잃은 하이에나처럼, 바람은
하얀 병동위에서도
초록빛 너른 대지를 꿈꿨다

골 깊은 바람소리, 오늘도
고단한 망상의 계곡 속으로
싸늘한 흔적을 찾아 떠난다.

김삼주
- 전북 남원 출생
- 2004년 월간 문학21 시부문 등단
- 용인문학회 회원

2009 겨울 vol.11 용인문화

www.ycc50.org

권두시 — 외출 | 김삼주 — 2

명사칼럼 — '국악' 정말 어렵기만 할까? | 김재영 — 4

에세이산책 — 내 친구 | 홍경화 — 6

젊어지는 대화 | 이미숙 — 8

초대시 — 허수아비의 춤 | 정은화 — 10

인터뷰 — "유머 반 강의 반, 그의 강의는 재미있다" | 서정표 — 11
족보연구가 이석호(李錫浩) 연세대 명예교수

생태보고서 — 은둔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겨울 들꽃' | 유영란 — 16
겨울 들꽃 이야기

용인논단 — 약천 남구만선생을 기리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 안영선 — 22

전통문화속의 끈 문화를 되돌아 본다 | 홍사국 — 24
생활속 끈문화

용인의 맛집 — 꿈틀 꿈틀 살아 있는 낙지 맛 보세요~! | 김태현 — 29
처인구 이동면 묵리 '뱃고동'

名家를 찾아서 — 운학동에 집성촌 형성…250여 년 전부터 세거 | 홍순석 — 33
남원양씨 문양공파(南原梁氏 文襄公派)

용인문화시설 소개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 송무경 — 38
경기도국악당

기행문 —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풍경 | 진 숙 — 43
마이산 답사기

용인문화 탐방 — 달콤함을 사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간다 | 김지혜 — 48
장애인 종합복지관

항아리속 술 익는 시간이 곧 인생살이 | 이을영 — 52
우리 용인 술 '막걸리'

문화원 소식 — · 경기민속예술제 · 2009 세계인천도시축전 답사 — 56
· 용인문화원 실버합창단 · 용인문화원-진천문화원 자매결연 — 57
· 용인600년 기념사업회 · 제7회 용인시 서예공모전 — 58
· 용인시 세거문중협의회 · 문화가족 송년행사 — 59

포토스케치 — 포토에세이 | 김호경 — 60

'국악' 정말 어렵기만 할까?

흔히들 국악은 어렵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도 사람에 따라 이 말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다. 하지만 이 경험에 대한 결과의 느낌은 누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국악이 알고 보니 참 쉽고 너무 재미있다"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는 것을 보면 어렵다는 말은 혹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데에서 오는 편치 못한 상황에 대한 표현은 아닐까.

국악하면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막연한 느낌의 "옛날 음악 또는 느리고 지루한 음악"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두 번의 즐겁지 못한 음악경험이 우리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국악은 어렵다고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은 참으로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국악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정서와는 사뭇 다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다양한 장르의 옛날 음악도 있지만 그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재창조된 이 시대의 음악적 정서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지금은 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국악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 참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욕심이라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음악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랄뿐이다. 국악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음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사실이지만 세계인이 인정하고 좋아할 만한 훌륭한 음악적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자랑스러운 경기도에 경기도립국악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우리국민들의 영혼을 맑게 함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함이다.

김재영
•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내 친구

거죽피부는 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해도, 비단처럼 푸른 머리 결은 반지르르 윤이 나는 내 친구. 친구의 옆으로 다가가면 특유의 체취가 폴폴 납니다. 코로 흡흡 들이켜지는 향기는 상쾌하고 신선해서 보름 막힌 코 쯤 뻥 뚫릴 겁니다. 친구와는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백삼십여 년입니다.

산비둘기도 친구의 옆자리를 탐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쟁잡니다. 그래서 산비둘기가 곁에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친구 품에 안기려고 서두릅니다. 선점하고 있으면 저만치 전선줄 위에서 꾸룩꾸룩 툴툴거리며 내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가려나 눈치를 보면서요. 산비둘기와 내가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나 말거나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내버려 둡니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묵묵히 지켜봅니다. 누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법을 친구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만 있지만 친구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울고 웃고 성내고 떠드는 모양을 지켜봅니다, 그냥.

깍깍.

어떤 때는 까치가 노리고 느닷없이 끼어듭니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걸 알고나 있는 듯 계속 깍깍거리며 떠들어 꽤나 시끄럽습니다. 난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 얘기를 친구에게 보고하는 모양입니다. 친구는 부드러운 바람결에 머리칼을 날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줍니다. 한참이나 떠들다가 어떤 해답을 얻었는지 까치는 휙 날아갑니다. 그럼 조용합니다. 다시 조용해지면 난 몸을 뒤척여 친구의 등에 기댑니다. 단단하고 널따란 친구의 등은 아주 편합니다. 내 등을 기댔다고 친구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내 묵직한 고민과 불안을 덜어주려고 등을 빌려 준다는 걸 난 압니다. 기대어 눈을 감고 있으면 가슴 시린 결핍들이 속속 채워집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을 비비며 시간을 흘러 보내다 보면 위로와 격려의 기운이 기댄 등줄기 통해 전달됩니다. 친구에게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심은 우정을 잘 가꿔 우람하게 키워 놓자는 겁니다.

친구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친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서먹서먹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친구 사귀는 데 있어 좀 깐깐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넓은 아량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친구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인생의 중반, 정체성의 위기와 반갑잖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인생 돌파구를 찾으려 해도 늦은 것 같아 쉽지 않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자잘한 걸림돌에 걸려 저 혼자 넘어지고 깨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마음이 비틀거리고 몸은 지쳤습니다. 때론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조바심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둠을 찾아 숨어 들어야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줄기 빛처럼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눈길을 교환하기만 했는데 편안했습니다. 엉망진창인 내 존재를 가만히 품에 안아줬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주는구나, 느껴지는 순간 가슴은 뛰었고 머리는 띵하고 멍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이가 무려 백삼십년 차인데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혹 기쁨이더라도 그건 내게 허용될 수 있는 기쁨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친구는 내게 자신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도록 북돋아 줬습니다. 이승의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우연이 인연을 낳을 줄 몰랐습니다.

가슴 저 깊숙이 같은 상처를 담고 있는, 그렇지만 말없이 인내하며 살아온 내면이 엿보여 가슴이 저리다고 친구는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다가오는 우정에 대하여 달려가 맞이할 겁니다. 뒷걸음질 쳐 피하지 않을 겁니다.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다정한 존재, 친구가 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와 그 감동을 받고 전달할 겁니다. 손실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서 말입니다. 혹 멀리 떠나 곁에 머물 수 없게 된다면, 마음으로 보면 될 겁니다. 믿음이 받쳐준다면 눈앞에 있고 없고는 우정의 깊이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우정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참다운 우정은 백삼십년 나이 차이쯤 거뜬히 극복할 수 있겠지요. 친구는 내게 태양을 대하는 것처럼 우정을 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것의 광채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존재, 태양. 묵묵한 느티나무. 아낌없이 주는 친구입니다.

홍경화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회원
- 순수수필작가회회원.

젊어지는 대화

누가 나이를 물으면 30대 라고 말을 하고 정말 내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 늙어감에 비애가 아닌 좀 더 젊게 살아보자는 의식으로 살다보니 나이에는 별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것은 내 나이를 자주 까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좋은 일 일 수도 있고, 나쁜 일 일 수도 있지만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 주로 10년 연하인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가끔 상처받을 일이 생길 때도 있다.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착각을 스스로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또래의 집중 관심이 되는 대화들이 나에게는 흥미 거리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 트였고 누구 못지 않은 열린 생각을 가졌다고 했건만, 어느 대목에서 단절된 대화가 시작되고 이질감으로 거리가 생길 때, 그들보다 훨씬 더 살아온 나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생각의 벽이 커다란 산처럼 느낄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며 자신의 그림자들을 돌아보게 된다.

성인이 된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알아 듣지 못하는 말들이 불쑥 튀어 나올 때 소외감이 바람처럼 흔들다 지나간다. 나에겐 식지 않은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허물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 생겨난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신체적 조건이 따라주질 않아 난감 할 때도 있다. 여름 끝자락에서 코스모스 길게 늘어선 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걸어보고 싶을 때도 있고 달맞이꽃이 하얗게 핀 저수지 길을 연인과 걸어 보고 싶은 감성은 여전한데 고집은 세지고 자기주장만 앞세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누가 뭐라 할라치면 서운한 마음이 먼저여서 삐지기 일쑤니 늙어 감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나이 들면 시어머니처럼 그런 늙음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던 맹세는 어디로 갔는지 수도 없는 벽을 쌓고 허물고 하며 밤을 새운다.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단다. 늙어서 망령이 나면 잘 때 베게로 꾹 눌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웃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미리부터 걱정이다. 그런 일들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가. 마음으론 옹이진 것들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썩은 물이 되고 핏물이 될 때까지 고달픈 일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니 늦은 철들기가 시작 되려나 보다. 나이 듦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이다. 활짝 핀 웃음으로 모든 것을 대변 할 수 있는 좋은 늙음을 가지고 싶다.

이미숙
- 순수문학등단
- 용인여성문학회장
- 용인문인협회회원 ·
- 한국문인협회회원
- 저서 햇살바르던날

허수아비의 춤

정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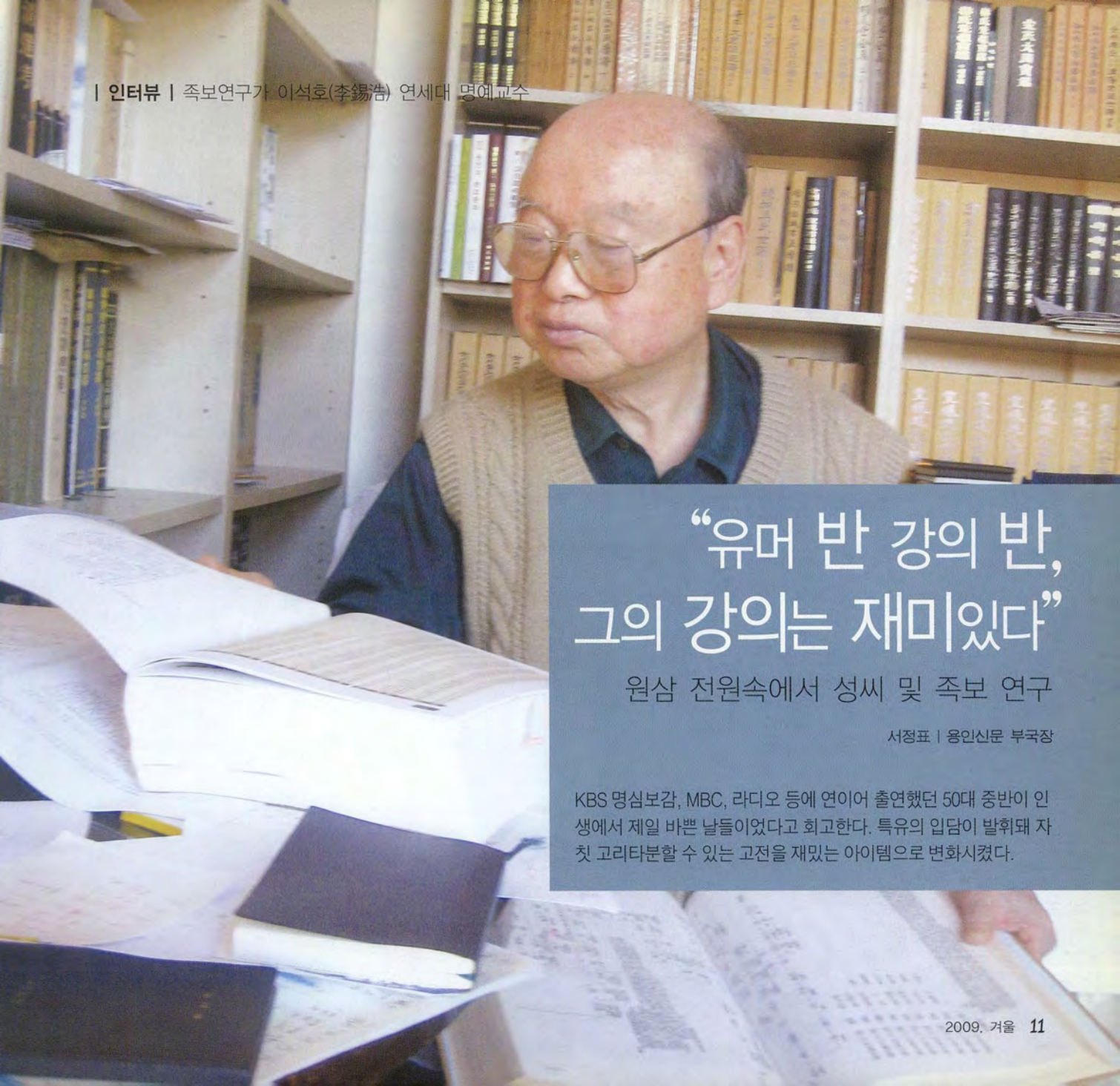
땅거미 지는 저녁 들녘에
반쯤 풀린 머릿수건
허름한 윗저고리
앙상한 나무에 벗어질 듯 걸쳐있다.

마주 보고 서있는
모자 눌러 쓴 아저씨
찢겨나간 셔츠
바람에 날린다.
지난 시간 속의 땀방울

곡식의 낟알로
곳간 채우고
자식들의 욕심 채운다.

아직도 들판엔
쓰러질 듯 날아갈 듯
바람 소리 장단 삼아
허허로운 마음 달랜다.

정은화
- 「한울문학」등단
- 한울문학 회원
- 용인문인협회 회원
- 현 남곡초등학교 영양사



"유머 반 강의 반, 그의 강의는 재미있다"

원삼 전원속에서 성씨 및 족보 연구

서정표 | 용인신문 부국장

KBS 명심보감, MBC, 라디오 등에 연이어 출연했던 50대 중반이 인생에서 제일 바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한다. 특유의 입담이 발휘돼 자칫 고리타분할 수 있는 고전을 재밌는 아이템으로 변화시켰다.

기증도서목록

꽉 짜인 일상의 틀 속에서 바쁘기만 한 현대인들. 그저 달려가기에만 급급한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다. 그런 우리에게 선조들의 기록들은 삶의 지침서가 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유유자적 낭만적인 풍류를 향유하는 옛 선인들의 생활이 바쁜 현대인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원향기 물씬 풍기는 원삼면 목신리에서 옛 선비의 모습으로 족보연구에 여생을 바치고 있는 이석호 교수를 찾아 나섰다.

1932년생인 이석호교수의 본관은 전주다.

목신리 후동에서 태어나 8세에 목신리 구봉말 서당에서 한학을 익히고 원삼초등학교, 태성중학교, 수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중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1959년 서울사범(교육)대학 병설중학교에서 2년의 교사생활을 거쳐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도올 김용옥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가수 김세환씨가 당시 제자였다.

"당시 약간은 무서운 선생이었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명성이 높아져 엉덩이 '빠따' 때렸다는 얘기 하기가 겁난다."고 웃음 짓는다.

그 후 서울대, 이대, 서강대에서 강사역임 후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다 중문학과를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했다. 현재는 1997년 정년퇴직해 원삼면 목신리 구봉말에서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유의 입담, 방송에서 빛나다

이석호교수는 타고난 입담으로 듣는 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런 그의 입담이 빛을 발할 기회가 찾아왔다. 80년대 초 보성고 시절의 제자였던 KBS PD가 TV명심보감을 맡아 달라고 한 것.

"처음에는 떨었지. 낯선 카메라, 조명에 기죽어 제대로 못해 잘릴 줄 알았어. 그런데 높은 분들이 몇 몇 입담이 좋다며 자르지 않더군. 허허"

방송에 익숙해지자 특유의 입담이 발휘돼 자칫 고리타분할 수 있는 고전을 재밌는 아이템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KBS 명심보감, MBC, 라디오 등에 연이어 출연, 50대 중반이 인생에서 제일 바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명성이 쌓이자 특유의 입담은 방송에 그치지 않았다. 방송국 신입직원과 내무부 군수후보들도 그의 강의를 들었다. 또 농림부 교육공무원도 재밌는 그의 강의를 들었다.

"반은 유머, 반은 강의"

필자가 질문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 교수가 질문을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은 누구지?" 필자가 "글쎄요. 허준? 이제마?…"라고 하자 "틀렸어 심청이 아빠 심봉사야,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면 이름까지 봉사일까? 허허허"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교수와 거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

"교수와 거지는 공통점은 그 첫번째는 뭔가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교수는 책가방, 거지는 깡통. 두 번째는 입만 달고 다닌다는 것이지. 교수는 떠들어서 밥먹고 살고 거지는 밥달라고 떠들지. 세번째는 직업을 갖기도 힘들지만 그 직업이 됐을때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수와 거지의 공통점을 통해 안이함을 경계하라는 그의 말에서도 유머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용인에서 400년 이상 세거한 50여 문중의 대표들이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종인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관심을 갖추기 위해 이석호 교수의 한국문화에 대한 특강도 있었다.

"죽마고우라면 이전엔 대나무를 타고 같이 놀던 친구라는 의미지만 요즘은 죽치고 마주앉아 고스톱을 치는 친구다."라며 고전과 유머를 넘나는는 특유의 강의에 참석자들은 박장대소를 멈추지 않았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주색잡기'야. 이 말은 다른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런데 주(술)가 처음이고 그리고 색(여자), 잡기(도박)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지. 색이나 잡기는 나이가 들거나 체력상 한계에 달하면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술이지. 자기 관을 짜서 옆에 두고도 마신다는 것이 술이야. 게다가 술을 매개로 색과 잡기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할 일은 당연히 술(酒)이야"

또 질문을 한다.

"고진감래가 뭔지 알아?"

필자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아닌가요?"라고 하자

"아냐, 고생 진탕하면 감기가 온다는 말이야, 하하하"고 한다.

그의 강의가 유머 반 강의 반 이듯이 인터뷰도 유쾌하게 이어졌다.

중국의 명시를 정리하다

"우리 조상들은 '시서화 3절'이라 불렀다고 해. 제일 먼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시가 제일 중요했던 모양이다"

그가 저술한 '중국 명시감상'. 이 책은 시의 세계가 지선이라 통했던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이야기가 담겨있다. 중국 땅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214편의 한시들이 담겨 있다. 이백 · 두보 · 맹호연 같은 유명 시인들의 작품은 물론 항우 · 유방 · 제갈량 등 역사상 위인들과 초야에 묻혀 살던 이름 없는 선비들의 작품 등 다양한

■이석호(李錫浩)
경기용인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교 중문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문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서울사범 · 보성고 교사 역임
서울대 이대 서강대 한양대 명지대 세종대 청주대 강사 역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중국 중앙연구원 방문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정년 퇴임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문화이사 역임

〈저 · 역서〉
공자(지문각) / 대학한문(일신사) / 난중일기(집문당) / 동국세시기(을서문화사) / 중국역대수필선 / 왕오천축국전(외)(을서문화사) / 동몽선습(외)(을서문화사) / 유남자(을서문화사) / 해동이적(을서문화사) / 호적문선(대양서적) / 북학의 · 동경잡기(대양서적) / 춘추좌전(평범사) / 장자(삼성출판사) / 달과 거울속의 시선—이태백평전(삼성출판사) / 이태백과 도교(집문당) / 중국의 과학과 문명 I · II · III(을서문화사, 공역) / 한국기인전 · 청학집(명문당) / 조선세시기(동문선) / 한국유교사상사(연세대출판부) / 중국명시감상(위즈온)

작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원문 및 우리말 번역은 물론이고, 그와 더불어 상세한 주석을 첨가함으로써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상과 감상을 돕게 하고 있다. 맨 끝 여설 부분에는, 그 작품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 작품에 비견될 만한 우리나라의 한시를 실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시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도 있게 했다.

아이들에게 '이순신'을 선물하다

'난중일기'는 우리 민족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기록한 7년 동안의 일기다. 이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난중일기'를 어린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엮었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쓴 난중일기를 옮긴이가 걸러서 실어 놓았다. 전쟁을 하면서 엄격한 군중생활을 이끌어가는 장군으로서의 이순신.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 효성스러운 아들로서의 이순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직스러운 신하로서의 이순신 등 인물의 다양한 면모를 글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역사속 영웅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자'를 만나다

이교수는 '장자'라는 책을 펴냈다.

"장자 원문을 필사하는데 오자가 거의 없어 놀랐지, 원고를 조판한 식자공들의 장인정신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구"

그가 말하는 장인정신이 이교수에게서도 보인다. 번역을 제대로 해내려면 대상 외국어를 잘알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은 번역한 내용의 완전한 이해와 우리 언어에

정통해야 한다. 이교수를 보면 '장자'를 통달해 그사상를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다. 또 한자로 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내는 실력도 월등하다. 마치 우리의 문학서적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느낌이다. 이 책으로 장자의 무(無)라는 한 마디가 희미하게 나마 마음에 스며들게 될 것 같다.

끝나지 않은 학문의 열정

요즘 그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이 우리나라 성씨와 족보를 정리하는 일이다.

이교수가 또 질문한다. "제일 좋은 성씨가 무었일까?"

"..."

"제일 좋은 성은 공씨야. 왜냐하면 공자라는 대성인이 있기도 하지만 만물의 시원인 '0'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지. 다음이 1을 뜻하는 청주 한씨야. 이어 요즘은 영어로 1을 뜻하는 '원'씨도 있어. 다음이 이씨, 양씨나 두씨고, 다음에 삼을 뜻하는 석씨, 사씨, 오씨, 육시…. 김씨나 박씨는 명함도 못 내밀지."

또 질문을 한다.

"그런데 요즘 뜨는 성씨가 있는데 무었일까?"

"..."

"'반'씨야, 0과 1사이에 있거든. 하하하"

유쾌하게 성씨와 족보얘기를 시작하는 이교수. 그는 지난 2005년 전주이씨 관련 능을 모조리 답사해 전주이씨 과거 합격자 명단을 책으로 엮어 출판 했다. 이책은 족보학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달성서씨 등 다른 문중에서도 이 책을 모델로 삼아 출간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이석호교수는 2009년 4월에 단행본 7140책, 고서 108책을 비롯 총 7248책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기증했다. 연세대에 가면 지금도 이석호 교수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인사로도 윤리 실천하는 것

그는 시신기증을 약속해 놨다.

"매장, 화장, 풍장, 조장, 수장, 수목장 등 수많은 장례문화가 있지만 죽어서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할지 의문이야. 그래서 시신을 의료발전을 위해 기증약속을 해 놓았어."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나오는 오복(五福)이 있는데 첫째가 수(壽)로 장수하는 것을 말하고 두번째가 부(富)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셋째가 강령(寧康)으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한다. 또 네번째가 유호덕(攸好德)으로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째가 고종명(考終命) 으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지"

이교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호덕(攸好德)이란 항목이다. 덕(德)은 그냥 얻어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수양을 통해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잡학박사'라는 별명이 있는 이호석교수.

그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인사성 하나만 밝아도 윤리를 실천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야. 작은 실천이 곧 윤리라는 말이야. 쉽지만 누구나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지만…"

은둔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겨울 들꽃'

온몸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주인공들

한겨울 서릿발의 아픔과 혹한의 시련을 이겨내고서야 비로소 찬란한 봄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만이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다. 들꽃들이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자.

개나리

겨울엔 숲과 들녘이 잠을 잔다.

한 해를 마감했거나 이듬해를 준비하는 들꽃들은 대지의 어머니 땅에 의지해 휴면에 들어갔다. 찬란한 봄을 맞기 위한 더 큰 성장을 위해!

겨울 숲으로 나서자. 옷을 벗은 나무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지만 친구인 바람마저 없다면 겨울 숲은 적막하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올려다 본 하늘은 투명하게 얼어버린 맑은 호수처럼 시린 빛이다.

싱그러운 봄, 어여쁜 여름, 화려한 가을을 보내고 무채색으로 가득한 그곳, 겨울 숲에서 은둔하고 있는 들꽃들을 만나보자.

미리준비 하는 봄

나무를 보려면 나무위의 하늘까지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겨울이라야 온 몸을 드러내고 하늘바라기 하고 있는 나무를 볼 수 있고, 가지 끝까지 한 아름 담아서 안아 볼 수도 있다. 나무가 전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여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 가지 끝에서 온몸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들꽃이 사라진 겨울 숲의 나뭇가지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꽃, 겨울눈이다.

겨울눈(冬芽)은 겨울을 나는 눈이다. 겨울에 생기는 눈이 아니라 겨울을 지내야 하는 눈이다. 다음해의 성장을 위한 기관이다. 눈을 만드는 작업은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씨앗이 만들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치열한 여름에 제일 먼저 준비해 놓은 눈은 가지의 맨 끝에서 털옷과 비닐 옷으로 무장하고 겨울을 이겨낸다.

붉나무의 겨울눈은 엽흔의 틈 안에서 털 고르기를 잘 해 놓았다. 목련의 겨울눈 바깥쪽에는 부드러운 비늘껍질들이 한 치의 틈도 없이 포개며 감싸고 있다. 껍질들에 난 부드러운 털이 겨울바람에 마르는 것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성급한 마음에 한 겨울에 껍질을 한풀 벗기도 하지만 문제없을 정도다. 물에 젖어 얼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은 눈꺼풀 안쪽에 방수액이 담당한다.

생강나무의 겨울눈은 금세라도 터질듯 부푼 모습을 하고 있다. 겨울 끝자락에서 봄

왼쪽부터 왕호랑버들, 개옻나무, 기린초, 까마귀밥나무

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다. 몽글몽글 노란 꽃다발을 매달 것이라는 걸 겨울눈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꽃눈은 한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나 있을런지 걱정스럽게 한다.

개옻나무는 줄기 끝에서 겨울눈을 만든다. 잎이 떨어진 겨드랑이에는 액아가 만들어져 있다. 겨드랑이에 안전하게 겨울눈을 은신시킨 대표주자는 청가시덩굴이다. 잎과 덩굴손의 보호를 받으며 엄마 품속처럼 안전하게 겨울을 지낸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고 버들강아지들이 기지개를 펴면 숲에선 호랑버들이 옷을 벗는다.

사랑스런 새싹과 꽃으로 씩씩하게 자랄 겨울눈을 살피는 일은 짧은 겨울 한낮으론 부족하기만 하다.

비움이 있고서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다

-쑥부쟁이, 동자꽃, 투구꽃, 기린초…, 동백꽃

꽃들이 진 자리에 씨앗이 달린다. 씨앗까지 비워내고 꽃받침의 흔적만을 남긴 꽃들은 또 다른 들꽃으로 태어난다. 비움이 있고서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다.

미국쑥부쟁이의 갓털들이 바람의 도움을 얻어 먼 여행을 떠나면 남겨진 받침은 반짝이는 별모양의 예쁜 꽃으로 변한다. 주황색 꽃이 동자의 얼굴처럼 환하게 피어나던 동자꽃은 암자에서 기다림에 지쳐 오뚝하게 앉아 얼어버린 모습처럼 변치 않은 자태로 남아있다.

왼쪽부터 목련, 미국쑥부쟁이, 별꽃, 복수초

왼쪽부터 노루발, 달맞이로제트, 동백꽃, 동자꽃

실은 '기다림'의 꽃말대로 봄을 기다리는 것이리라. 투명한 투구가 되어버린 투구꽃, 별무더기가 손짓하는 듯한 기린초, 모두가 겨울 꽃이 되었다.

겨울에 정말로 꽃을 피우는 나무 중의 으뜸은 동백꽃이다. 겨울은 꽃밥을 배달해 줄 곤충들이 거의 없는 시기다. 동백은 이런 문제점을 새를 이용하여 극복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바로 동박새가 동백꽃의 사랑의 전달자인 셈이다. 남부지방의 산과 들에서 주로 자라고 원예품종으로 관상수로 심어지고 있다.

양지바른 베란다에서 붉은 꽃망울을 터뜨려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사랑스런 나무이다.

눈 속의 꽃

-고들빼기, 별꽃, 산부추, 애기나리…. 얼음새꽃

한여름의 잎과 가을의 열매를 매단 채 겨울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산부추와 애기나리의 모습은 그대로 눈 속의 꽃이 되어 겨울을 난다.

겨울이 끝나기 전 눈 속에서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는 복수초가 있다. 눈을 뚫고 나와 꽃이 피면 근처의 눈이 녹아 동그란 구멍이 생겨 얼음새꽃 이라는 예쁜 이름으로도 불린다. 언 땅을 비집고 나오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우리 들꽃이지만 일본에선 새해 인사 선물로 주기도 한다.

왼쪽부터 붉나무, 산부추, 생강나무, 쑥부쟁이

왼쪽 상단부터 애기나리, 애기똥풀, 왕고들빼기, 참나무 새순.

뒤늦게 싹을 틔운 별꽃과 애기똥풀의 어린잎들이 된서리를 만났다. 이들의 생존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 여린 싹을 포근한 이불로 덮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에이기도 한다.

생존,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모든 식물들은 물기를 정리하여 월동준비를 한다. 조직 내 수분을 감소시켜 얼음으로 인한 잔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생물의 몸속에 스며든 물은 기온이 떨어지면 얼음 조각으로 변하면서 조직에 생채기를 낸다.

달맞이꽃의 뿌리잎(근생엽)은 땅의 온기를 받아들여 겨울 동안 작으나마 양분을 생산하고, 붉은 잎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전략을 펼친다. 눈 덮인 숲속에서 참나무 어린잎이 붉게 물들어 빛바래기를 하는 모습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한겨울에도 푸른 자유를 외치며 초록 잎을 간직할 수 있는

왼쪽부터 투구꽃, 쪽동백나무, 찔레열매, 청가시덩굴

전략을 지닌 노루발풀이 있다. 겨울에 낙엽을 들춰보거나, 한겨울 눈밭 산행을 하다 눈 속에 핀 푸른 노루발의 잎을 보게 되면 겨울 속에서 봄을 만난 듯 신비롭다. 봄이 오기를 가슴 속 깊이 바라게 만드는 풀이다.

겨울눈을 녹이는 초록의 강인함이 인상적이다. 굶주림에 지친 노루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풀이기도 하다. 생태계에서 겨울 동물들의 먹이로 쓰일 지위를 임명받은 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자연은 아는 듯 모르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그물망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겨울의 은둔자로 들꽃을 내버려 두자.

봄이 찾아와도 깊은 숲 계곡에 은둔한 들꽃을 그대로 두자. 우리 땅에서, 용인의 산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들꽃들이 살게 하자. 들꽃들은 한겨울 서릿발의 아픔과 혹한의 시련을 이겨 내고서야 비로소 찬란한 슬픔의 봄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만이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다. 들꽃들이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자.

이끼

유영란
• 생태활동가

약천 남구만선생을 기리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 방안을 마련하며

용인에는 유난히 걸출한 인물들이 많다. 정몽주를 비롯하여 민영환, 오달제, 조광조, 유형원, 남구만 등 많은 분들이 용인과 연고를 맺고 있다. 많은 지역들이 그 지역의 유수한 인물을 발굴하여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비해 용인은 상업적인 축제에 밀려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포은문화제'만이 문화축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용인문학회에서는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파담)에 연고를 두고, 생애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용인과 함께 한 약천 남구만의 문학적 삶을 조명하고 이를 지역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약천 남구만을 기리는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천 선생이 일 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동해시에서는 선생을 기리는 문화축제로 '전국시조경창대회'가 마련되었고, 홍성에서는 구산마을(거북이 마을)에 약천초당을 건립하여 시조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 개월 간 유배된 남해군에서도 약천 선생을 위한 유배거리를 조성하고 추가로 유배문학관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용인문학회는 약천 남구만을 기리는 문화축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 유적을 통해 선생의 문학적 재능과 용인과의 연고성을 부각시켜 '약천문학상' 제정 및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용인의 새로운 문화축제로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 조성을 위한 방안

용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약천 남구만의 역사적 삶과 문학적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시조 한 편으로만 대표되었던 약천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한시와 한역시로 확대하여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정립하기 위한 문화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용인은 예로부터 많은 인물이 나온 곳으로 유명하지만 지역축제 자체가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선양의 의미를 지닌 것이 없고, 주로 정치 홍보적인 축제나 상업적인 축제만이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열악한 것이 현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의 조성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는 용인시를 넘어 동해시와 남해군, 홍성군을 연결하여 전국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문화벨트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축제가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은 물론, 전통문화의 발굴을 통한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이끌어 내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 조성을 위한 방안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하는 지역문화축제는 지역 가치의 창출과 연계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미 남구만이라는 인물은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며, 초등학생들조차도 대표 작품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정도는 외우고 다닐 정도가 되었다.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의 궁극적 목표는 용인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축제를 통해 마련된 남구만 선생의 이미지 효과는 용인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공식행사로 약천문학제를 제안한다. 이는 약천 남구만 선생의 문학사적 위치를 높이고, 인물에 대한 이미지 창출을 통해 지역 문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약천문학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성인들을 위한 '약천문학상' 제정,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천글짓기대회', '약천문학 심포지엄'과 '약천문학 서예전', 비파담 별묘를 공간으로 활용한 '시조 체험마당', 약천 선생의 묘소와 문학비, 별묘 등을 연결하는 '약천문학기행' 등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테마 문학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용인에는 허균, 박목월, 김영랑, 이태준, 전혜린 등 위대한 족

별묘

적을 남긴 작가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약천문학제를 통해 이러한 작고 문인들의 묘소를 묘소가 아닌, 문학 유적으로 발굴 조성하고, 약천 별묘와 비파담 일대에 약천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학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용인은 명실상부한 한국 문학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약천문학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용인시와 용인예총, 용인민예총, 용인문화원, 경기문화재단, 의령 남씨 종중 등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약천 남구만 문화축제 효과

문화는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문화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은 나라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삶의 만족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 마인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천문학제는 용인 시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정체성을 높이는 좋은 행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축제가 용인시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면 외부 관광객 유치에 대한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연례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즉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논의를 마치며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 전승의 축이다. 지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축제를 마련할 수 없다. 해마다 많은 수의 축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마인드를 통해 현실의 행복한 삶과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천 남구만이라는 좋은 인물을 가진 용인은 행복한 도시이다. 그의 작품 속에 흐르는 민족적 정서와 비파담에서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남긴 문학 작품의 힘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남구만 선생 개인의 정치적, 역사적 삶보다는 그의 문학적 삶이다. 모든 국민의 애송시가 된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의 창작지가 논란을 일으키게 만든 것 자체도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 년 간 유배지였던 동해시나 6개월 간 유배지였던 남해, 어린 시절에 잠시 머물렀던 홍성에서는 남구만 선생을 기리는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20여 년의 긴 시간을 함께 한 용인에서는 선생을 기리는 행사 하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용인' 하면 약천 남구만 선생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용인시에 당부의 말을 전한다.

용인시는 경기도에서도 자립도가 매우 높은 지자체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적 자립도에 비해 문화적 자립도는 별로 높지 않다. 이는 문화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문화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을 불러 공연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이끌어 내고, 전승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약천선생 시가비

안영선
- 용인문학 편집주간
- 성지중학교 교사

전통문화속의 끈 문화를 되돌아 본다

끈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므로 하찮게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옛부터 물건을 맬 때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니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옛부터 끈으로 사용 되어온 것들을 알아보고 사라져간 끈의 역사를 살펴보자.

1. 식물류

1) 볏짚

가는 새끼줄로는 가마니 짜기, 작은 물건 묶기, 굵은 새끼줄로는 가마니 묶기, 나무단 묶기, 동아줄로 사용되었다. 짚으로 굵게 꼬아 만든 것으로 그네 줄, 가래 줄 등이 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큰 돌을 동아줄로 메어 집 지을 때 터를 다지는 일을 온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주 잡고 들어 올렸다 꽝꽝 놓으며 놀이 겸 울력(여럿이 힘을 모아 하는 일)할 때 사용했다. 더 굵게 만들어서 마을간에 줄다리기 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

2) 닥나무 껍질

닥나무 껍질은 매우 질겨 속껍질을 이용해서 소 고삐, 지게꼬리, 태기(새 쫓는 기구) 끝부분이나 괭이채 끝에 꼬아서 사용했다. 속껍질을 이용해 창호지(한지)도 만들어 썼다.

3) 소나무 뿌리

가늘게 자란 소나무 뿌리를 캐다가 다듬어 사용했다.

잘 썩지 성질을 이용해 물에 자주 담그는 그릇 등을 만들거나 꿰어 매는데 사용했다.

4) 싸리나무 껍질

싸리나무를 7월에 베어다 광주리, 채반, 바구니 등을 만들었다. 싸리나무 껍질을 끓는 물에 삶아서 지게꼬리, 소 고삐 등 여러모로 사용했다.

5) 그령풀

시골 소로가에 발에 채이며 자라는 질긴 그령풀. 잘 자란 것을 베어다가 말려서 그릇도 만들고 새끼도 꼬아 끈으로 사용한다.

6) 댕댕이

논둑이나 밭둑에 자라는 가늘게 뻗는 풀로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 댕댕이 채반 등 음식물 말리는 그릇으로 할아버지 장죽구멍 뚫기에도 제격이다.

7) 황마 또는 삼

가늘고 길고 높게 자라며 가을에 베어 물에 삭혀 껍질을 벗겨내어 옷감짜기, 밧줄 만들기에 사용한다.

8) 갈대(갈땔이)

하천 모래 목에 길게 자라는 풀로 그릇 만드는 재료로 갈대 채반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9) 목화

이불과 옷감, 가느다란 끈, 실 등 다양하게 사용했다.

10) 모시

여름 옷감 만드는 풀이다.

11) 왕골

돗자리 만들기에 쓰였고 왕골 껍질로는 아낙네들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받침(또아리)으로 사용됐다.

12) 칡

7월에 채취하여 껍질을 벗기어 속껍질로 옷감을 짜기도 하고 왕골자리, 매는 끈 등에 사용됐다. 마른채로 질기게 쓰는데 비매기, 갈퀴매기, 도리깨매기 나무 단 등 용도가 다양하다. 가늘게 만든 끈은 노끈으로 사용됐다.

13)고무줄

고무로 만들어 신축성이 좋은 줄로 갖가지 물건을 묶는 데 사용한다.

14)기타

밀짚, 호밀짚, 대나무 대패밥 등으로 여름용 모자를 만들어 썼다. 그밖에도 식물의 덩굴이나 줄기를 많이 구해 썼다.

2. 동물류

1) 명주실

누에의 집(누에고치) 물에 끓여 둘레를 이용해 실을 뽑아서 매우 가는 실로 비단을 짠다.

2) 어시랭이

밤나무 벌레의 고치, 밤나무 잎을 먹는 벌레의 집인데 매우 성글게 고치를 짓는데 명주실보다 질기므로 2차대전 때 낙하산실로 사용했고 농부들이 논 홈칠때 골무로 제격이다.

3) 말총

말의 꼬리털로 옛날 양반들 갓 망건 등을 짜는데 사용됐다. 소꼬리로는 매미잡는 율무로 사용했다.

4) 다리

사람의 머리털로 끈 종류에 섞어서 쓰면 잘 닳지가 않아서 질기고 좋다.

5) 뱀장어 껍질
태기의 끝이나 팽이채로 사용했다.

6)소가죽
가죽끈 가래줄 첫 부분(군디기, 사라져 가는 우리말)

7)고래심줄
활시위 주이나 정구채로 썼다고 함(고래심줄보다 질긴놈)

8) 털실
양의 털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만든다.

3. 광물류

1. 철사나 쇠사슬
요즘에는 광섬유, 탄소섬유, 네이론, 나이론, 테트론 등 세월의 변천사속에서 사라져 가고 새로 생겨난다.

끈하면 세상에 안 통하는 데가 없고 없는 곳이 없다. 우리는 믿음의 끈을 잡고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을 얻으려고 끈에 매달린다. 심줄보다 질긴 인연의 끈을 잘라 보려고 과거 현재 미래를 설법하며 바르게 살잔다.

단군 할아버지의 인연의 끈, 당파 싸움 파당의 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호의 끈, 사랑의 끈, 보이지 않는 끈 등을 잘라 손해도 보고 이익도 얻고 아무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몸에 숨어 있는 핏줄과 힘줄, 땅속 광맥인 금줄, 수맥인 물줄, 사형수의 목메다는 줄, 그네 줄, 연을 날리는 연줄, 서울에서 전국으로 통하는 길 줄, 광케이블로 통하는 전화줄, 빨래줄, 거미줄, 마을간 정월행사로 하는 줄다리기줄...

우리눈에 보이는 줄이나 끈보다 보이지 않는 끈을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너무나 깊이 알고 자손들 가르침의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다.

식물 이름도 잘 모르는 요즘, 보이지 않는 끈을 제공해 주는 자연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다시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한다.

홍사국
• 시인
• 용인문학회 회원

'뱃고동'

꼼틀꼼틀 살아있는 낙지 맛 보세요~!

저수지가 한 눈에…풍경까지 맛있는 곳

쫄깃함과 담백함에 묻어나는 낙지 한 점이면 추운 겨울의 추위는 가신다. 싱싱한 야채의 아삭함과 어우러진 낙지의 쫄깃함과 담백함, 다 먹고 남은 지글지글 국물에 볶아먹는 밥맛도 역시 일품이다.

글 | 김태현

'쟁기질하다 쓰러진 소도 낙지 한 마리를 솔잎에 싸서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옛 속언처럼 낙지는 쇠한 기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갑자기 떨어진 날씨에 기력이 모자란다 생각되면 시간을 잊을 수 있을만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꿈틀 꿈틀 살아 움직이는 낙지를 맛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곳을 원한다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신원저수지 앞 뱃고동을 추천한다. 살아 꿈틀대는 산낙지와 물좋은 해물을 이용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미 마니아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음식은 물론이고 신원 저수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자연 경관도 속된 말로 '끝내 주는 곳'이다.

눈이 '확', 입맛도 '확'

겨울철 햇살이 내비추는 잔잔한 저수지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뱃고동'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분히 활용한 곳이다.

외관 상 비춰지는 이곳은 언듯봐도 세련됨이 물씬 풍긴다. 넓은 주차장을 지나 2층의 본관에 들어서면 잘 꾸며진 도시 외곽의 휴식처 같다. 아담하게 꾸며진 정원과 입구부터 남다른 감각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확 사로잡는다.

40명에서 80명까지의 단체 손님들도 수용가능한 1층 홀을 지나 2층에 들어서면 또 다른 풍경이 연출된다.

이곳은 한 눈에 들어오는 신원저수지 뿐 아니라 고요한 산능성이 아래의 풍요로움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뱃고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이 집 주인인 한현숙씨는 작은 배려를 했다. 2층을 통째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공간은 잔잔한 음악과 더불어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거른 것 없는 밖의 세상과 더불어 따듯한 차 한잔의 여유, 거기에 소곤소곤 담소까지 나눌 수 있는 매력 적인 장소다.

또한 높은 내부 천장은 칠성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상들리에가 멋드러지게 걸려있다. 짜투리 공간에 놓여진 갖가지 종류의 분재들과도 잘 어울려 어느 멋진 카페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곳은 분명 해물 요리를 전문적으로하는 요리집이다.

국물이 끝내주는 '박속 낙지탕'에 지글지글 철판 볶음까지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요리는 단연 낙지요리다.

우선 자연이 주는 배려를 만끽하며 자리에 앉으면 심심한 밑반찬들이 한 상 가득 놓여진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짜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밑반찬들은 본요리가 나오기전에 비워지는 게 다반사.

산낙지와 해물요리를 전문으로하는 '뱃고동'에서의 첫 번째 음식은 박과 무 등을 넣고 끓인 육수에 살아있는 낙지가 통째로 들어가는 박속 낙지탕이다.

시원한 국물은 절묘하다 못해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맛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기력(?)이 모자란다면 '뱃고동'의 박속 낙지탕으로 원기를 회복하길…. 특히 시원한 국물이 끝내주는 박속 낙지탕은 전날 술이 과한 분들의 해장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

지글지글 철판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낙지 요리도 일품이다. 갖은 버섯과 파, 양파, 기다란 콩나물, 무 등 그날 그날 들어오는 싱싱한 야채와 이 집만의 특제 고추장 소스가 버무려진 낙지 철판 볶음은 특히 술 한잔의 여유를 누리려는 술꾼(?)들 뿐 아니라 얼큰함을 즐기려는 여성분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쫄깃함과 담백함에 묻어나는 낙지 한 점이면 추운 겨울의 추위는 가신다. 철판위에 놓여진 살아 있는 낙지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올려 놓자마자 지글지글 철판위를 돌며 양념과 야채를 힘으로 섞는다. 굳이 사람의 손이 갈 필요도 없다. 싱싱한 야채의 아삭함과 어우려진 낙지의 쫄깃함과 담백함, 다 먹고 남은 지글지글 국물에 볶아먹는 밥맛도 역시 제격.

또한 점심시간 찾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해물뚝배기도 인기 만점이다. 뚝배기 한그릇에 담긴 바다 속 해물의 가짓수도 여러가지. 소라, 바지락, 백합 등 조개와 전복에 꽃개, 낙지, 쭈꾸미 등 등. 푸짐함이 든든한 해물 뚝배기의 칼칼한 국물은 역시 한국인의 입맛엔 딱이다.

이밖에도 제철을 맞은 생태찌개, 바다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해물찜과 해물탕, 산낙지 전골 등도 맛 볼 수 있다. (예약문의 031-323-7152)

조선 세종 때 명신 양성지(梁誠之)를 배출한 문중

운학동에 집성촌 형성…250여 년 전부터 세거

글 | 홍순석(강남대 인문대학장) 사진 | 서정표

남원양씨의 기원

《남원양씨족보》에 의하면, 남원양씨의 기원은 탐라국 개국신화에 등장하는 삼신(三神:高 · 良 · 夫) 가운데 한 사람인 양을나(良乙那)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양을나의 원손(遠孫)으로 양탕(良宕)이 신라국에 입조하여 귀족으로 예우를 받았으며, 이때 '량(良)'을 '양(梁)'으로 고쳐 썼는데. 이것이 양씨(梁氏)의 성씨로 정착한 것이다. 그의 후손인 양우량(梁友諒)이 신라왕실에 큰 공을 세워 757년(경덕왕16) 때 남원부(南原府) 남

재실 사심재

원백(南原伯)의 작호를 받았다. 이때부터 남원을 관적(貫籍)으로 쓰게 되었으며, 양씨(梁氏)는 제주와 남원 두 관적으로 나뉘어졌다. 훗날 충주가 분관되어 세 관적이 되었다. 일제식민지 때 조사한 성씨의 분포를 보면, 양씨 관적이 79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이 세 관적에서 분리된 것이다.

남원양씨 가문의 표상 양성지(梁誠之)

남원양씨의 가문을 크게 번창시킨 이는 문양공(文襄公) 양성지(1415-1482)이다. 그는 조선 세종조의 대표적인 명신으로 성종조까지 6조에 걸쳐 임금을 보필하면서 뛰어난 경륜을 펼쳤으며, 우리나라 정치 · 문교 ·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세조는 그를 '해동의 제갈량(諸葛亮)'이라고까지 칭송하였다. 저서로《눌재집(訥齋集)》《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동국도경(東國圖經)》《농잠서(農蠶書)》《목축서(牧蓄書)》《유선서(諭善書)》《황극치평도(黃極治平圖)》《팔도지도(八道地圖)》《양계방수도(兩界防戍圖)》등이 있다.

《성종실록》의 성종13년 6월 11일(무신)조에 <지중추부사 양성지의 졸기(卒記)>가 있다. 당대 사관이 기록한 가장 객관적인 인물평이라 할 수 있다.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양성지의 자(字)는 순부(純夫)이고, 남원인(南原人)이며, 증 의정부 우찬성(贈議政府右贊成) 양구주(梁九疇)의 아들이다. 정통(正統) 신유년(1441, 세종 23) 진사(進士) · 생원(生員) 시험에 합격하고, 또 문과(文科)에 제 2인으로 합격하여 처음에 경창부승(慶昌府丞)에 제수되었다가, 성균 주부(成均主簿)로 옮겼다. 임술년(1442, 세종 24)에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에 임명(任命)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되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어느 날 세조(世祖)가 상참(常參)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양성지가 아뢰기를, '성체(聖體)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절주(節酒)하도록 하소서.'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오직 그대가 나를 아낀다.' 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加)하도록 명하였다. 이 해에 집현전이 파(罷)해지자, 임금이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옮기

양남석 옹

양지면 대대리 운양제

양이해 묘비

게 하였다. 박팽년(朴彭年) 등이 주살(誅殺)되자, 사람들이 '양성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공모했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이 때를 당하여 사람으로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양성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을 보증한다.' 하였다. 경진년(1460, 세조 6)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에 승진되었다가, 신사년(1461, 세조 7))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계미년(1463, 세조 9)에 양성지가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여 서적(書籍)을 간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양성지를 제학(提學)으로 삼고,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가(加)하였다.」

양지면 대대리에 영면한 문양공의 부친 양구주(梁九疇)

용인시에 소재한 남원양씨 문양공파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양지면 대대리(속칭 양달말)의 양구주(梁九疇) 묘소를 들 수 있다.

남원양씨 12세조인 양구주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천여(天與)이다. 조부는 양우(梁祐), 부친은 양석륭(梁碩隆)이다. 부인은 전주부윤 권담(權湛)의 따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충청도 옥천군 <명환:본조>에 "양구주(梁九疇)는 태종 때 고을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법을 시행함에 공정하고 부지런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임함에 간명하고 엄정하였다. 서산(西山)에 잣나무 3백여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도 관청에서 그 이익에 힘입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사후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추증되었다.

남원군은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는 바로 둘째 아들이다. 남원군은 만년에 김포에서 거주하다 세상을 마쳤다. 지금의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한터에 묘역이 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양구주의 아들 양성지(梁誠之)가 정승이 되었는데 부친은 양지에 장사하고, 모친은 강원도 횡성 소흘산에 장례하였다. 매양 녹으로 부양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더니 아들 양원(梁瑗)으로 하여금 양지현감이 되게 하고, 차남 양수(梁琇)는 횡성현감을 삼아서 각각 부모의 묘소에 제사를 받들게 하니, 영화와 효도에 유감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양이해 묘소

문양공부친 양주구 묘소

운학동에 집성촌을 형성한 남원양씨 문양공파

처인구 운학동에 집성촌을 형성한 남원양씨들은 문양공 양성지를 파조로 모시고 있는 문양공파의 후손들이다. 문양공의 후손들이 용인지역에 연고를 갖게 된 것은 문양공의 부친인 양구주의 묘역을 대대리에 조성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문양공의 아들 양원(梁瑗)이 양지현감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17세기 초반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양씨종중에서도 문양공파 후손들이 운학동에 입향한 시기는 조선 숙종 때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양이해(梁以海)가 이 마을에 정착한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

1957년에 간행된 『경기도지』에는 "용인에 세거하고 있는 남원양씨의 집성촌은 용인면 운학리로써 26호가 살고 있으며 250여 년 전부터 세거하였다"고 적혀 있다. 지금으로부터 3백년이 되는 셈이다. 처인구 운학동의 대표적인 성씨로 남원양씨가 손꼽혔을 정도이다. 그러나, 지금은 타성(他姓)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원양씨 후손들 대다수가 외지로 전출하였다. 지금은 종가와 종손들 몇 가구만 남아 있다. 종중의 대소사는 재실인 사심재(士深齋)에 모여서 논의한다.

운학동의 호동과 별학동, 해곡동에는 영(英)의 묘역을 비롯해 이해(以海)와 그의 다섯 아들인 장자 덕태(德泰), 차자 덕항(德恒), 3자 덕승(德升), 4자 덕관(德寬), 5자 덕이(德履)의 묘소가 있다. 이외에 이해의 12명 손자들의 묘소와 그 후손들의 묘소가 산재해 있다.

남원양씨 운학동종중에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양지면 대대리 남원군의 묘제를 지내고, 10월 6일에는 운학동에 산재한 선조의 묘역에서 묘제를 지낸다. 묘역의 관리와 묘제는 운학동종중과 각 지파들의 종손들이 주관하고 있다. 음력 10월 6일 오전에는 영(英), 덕관(德寬)의 묘제를 지내고, 다음에 사심재(士深齋) 뒤에 위치한 이해(以海), 덕태(德泰), 혁(赫)의 묘제를 지낸다. 이어 사심재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오후에는 해곡동의 묘역에서 묘제를 지낸다.

남원양씨 문양공파에서 배출된 주요 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승본 소설가 · 시인, 승일전 용인시청회계과장, 승학 전 용인시의회 의장, 승범 전 육군대령, 충석 전 시의원, 승룡 중앙일보 문화사업부 대표이사 등이 있다.

"나라사랑하며 충(忠)을 실천"

운학동 남원양씨 문양공파 문양공의 17대손이며 영(英)의 종손인 양남석(83세)옹이 20여 년간 문중의 대소사를 관장해 왔으며, 운학동 종중의 회장을 맡아왔다. 2년 전부터는 양승일씨가 뒤를 이어 종중의 회장을 맡고 있다. 250여 년 전부터 운학동에 세거하고 있는 남원양씨 문양공파.

"우리 종중은 시조인 문양공이 정주학자(程朱學者)이면서 성리철학(性理哲學)만이 아니라 실용을 중요시하며, 국력배양과 민생안정을 중요시하는 학문태도를 가졌었기 때문에 문중의 핵심은 충(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양공의 자주적인 사상은 부국강병을 위한 실천을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저희 후손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충(忠)을 실천하는 것이 큰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의 덕목을 지역에서 묵묵히 실천해 가고 있는 남원양씨 문양공파. 지금은 운학동에 종가와 종손들 몇 가구만 남아 있지만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아직도 크기만 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전통예술을 창조하고 보급하는 국악 저변확대의 산실

경기도 국악당은 공연뿐 만 아니라 어린이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등 전통예술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참여형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송무경 | 용인문화원 향토연구원

2007년 4월 개관한 경기도국악당은 한국전통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과 외국인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건립되었다.

공연장과 강습실, 합주실, 악기보관실, 의상보관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악예술인에게는 창조적 예술 활동의 무대를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이다. 공연장은 넓이14m, 깊이12.5m, 면적175㎡의 중극장규모로 국악공연을 올리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무대연출이 가능하다. 객석은 장애인석 6석을 포함하여 총 426석으로 관객에게 최상의 관람조건을 제공하고자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은 물론이며 공연장관람석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경사와 휠체어용 리프트, 공연장입구의 점자와 음성으로 된 무대안내판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랑의 문화회원제도'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공연을 무료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을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위해서는 공연장 1층 로비에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국악당은 공연뿐 만 아니라 어린이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등 전통예술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참여형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악을 생활 속에서 만나자 – 전통예술교육강좌

전통예술교육강좌는 우리의 소리, 우리의 문화를 보고 듣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배우고자하는 이들을 위하여 연령별,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평소국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시간별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있다. 한국무용을 배우는 이학순님(기흥구 영덕동)은 7년 전 중풍으로 한쪽 팔에 마비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무용을 꾸준히 배운 결과 지금은 건강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국악당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웃는 얼굴에 에너지가 느껴졌다.

국가유공자는 50%, 경기도문화의 전당 특별회원은 10%, 으뜸회원 및 국악단 후원은 5% 할인되며 두 강좌 이상 수강시 10% 할인혜택이 있다. 수강생은 경기도문화의 전당 및 국

악당 기획공연 할인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한다.

유아강좌-사물놀이, 난타
초등강좌-사물놀이,판소리,한구무용,가야금,해금
성인강좌-단소,장구,해금,사물놀이,민요,한국무용,입춤(이매방류),교방장고춤, 승무(한영숙류), 대금, 대금연구반, 가야금

2009년 한 해 사랑받았던 공연들

2005년 11월 실시한 용인시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용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장르는 '영화' (44.5%)였으며 다음이 대중가요(17.1%), 연극이나 뮤지컬(11.6%), 클래식음악(5.3%), 문학(4.8%),미술 및 사진전시(4.3%), 국악(3.1)순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국악도 변하고 국악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있다. 정통국악은 물론이고 실험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시도로 대중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중이다. 경기도국악당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도립국악단의 공연을 매일 상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획공연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경기도국악당으로 옮기게 했다. 사랑받았던 공연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엄마랑 아빠랑 전통문화 나들이'

2009년 4월 5일부터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되었으며, 도립국악단과 도립무용단이 출연했다.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 우리전통문화를 직접보고 느낄 수 있었던 이 프로그램은 웅장한 궁중음악, 경쾌한 경기민요, 신명나는 웃다리 풍물 등 우리의 소리를 만날 수 있었던 '별주부와 떠나는 소리악' 과 교과서에서 보던 국악기를 사회자가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며 더불어 소리체험으로 국악의 정수를 느끼게 해주는 '교육과 체험이 만난 국악공연', 그리고 우리의 음악과 춤을 배우는 '덩더쿵~얼쑤 신나는 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피리인형 떼루떼루'

2009년 4월 8일부터 2009년12월19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공연되었으며 현대인형극회가 출연했다.

주인공 떼루떼루가 국악나라에서 대금 임금과 단소장군, 팽이치기 인형, 가야금아가씨, 장구로봇 등 다양한 국악기들과 친구가 돼 우정을 쌓는다는 이야기로 댄스음악부터 동요, 전통음악까지 국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현대인형극회가 보유한 특허 받은 인형제작기술과

인형극에서는 맛보기 힘든 사물놀이 연주도 선보였다. 특히 어른들도 대금, 소금, 단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형으로 나와 각각의 악기를 설명하여 공연을 본이들은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을 것이다.

국악인형극 '덩덩 쿵따쿵'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으로 12월23일 공연했다. 인형과 음악이 하나가되는 무대로 전통음악과 해금독주,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선율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인형들의 춤사위와 국악기로 연주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안겨주었다.

'JUMP'

2003년 7월 초연한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랑받은 작품으로 우리나라 태권도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2년 연속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판매순위1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으며, 뉴욕 브로드웨이에 'JUMP' 상설공연장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가족사랑을 무술로 표현하는 별난가족 스토리는 환상적인 웃음을 선사한다.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 19:30에 공연하며 1월1일과 2일은 15:00시에도 공연한다.

그 외 전통음악의 현대화작업을 통하여 국악의대중화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실내악단체 '슬기둥'의 다양한 퓨전국악연주회와 자유를 향한 어설픈 죄수들의 좌충우돌 탈옥기인 뮤지컬 '브레이크아웃 (BREAK OUT)' 은 연말 지친 이들에게 공연 내내 웃음과 짜릿함을 선사하였다.

'피리인형 떼루떼루'

국악인형극 '덩덩 쿵따쿵'

'JUMP'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상설공연

경기도립국악단은 2009년에 우리음악을 집중 조명하고자 봄(4월~6월)에는 국악관현악, 여름(7월~8월)에는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퓨전국악실내악, 가을(9월~10월)에는 산조, 기악합주, 민요, 판소리 등의 민속풍류를, 그리고 겨울(11월~12월)에는 정악공연을 선보였다.

정악(正樂)은 한국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연주되어 오던 모든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절제를 이상으로 여겨 가락의 변화가 적고 템포가 빠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겨울공연은 정악을 총망라하는 무대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제례악', 연회에 사용되는 '연례악',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식에 사용되는 '군례악', 정가, 정재(궁중무용) 등이 연주되었다.

국악애호가들에게 정악을 집중적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우리음악에 대한 교육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립국악단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악예술단체로서 '경기도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음악의 계승 및 발전'을 목표로 1996년 8월에 창단되었다.

경기도립국악단은 국악관현악을 기본 편성으로 경기민요, 정가, 판소리 등의 성악파트와 사물놀이팀 등 총 8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동안 80여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900여회의 연주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의 보존과 계승은 물론,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_김재영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기악부문 장원 (문화부장관상)
- 2005 KBS국악대상 수상 (작곡 및 지휘)
-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공연
- 중앙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안산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 현 경기도립국악단 단장겸 상임지휘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

용인시에서는 기흥구 상갈동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문화관광자원들의 공통분모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으로 그 한축에 경기도 국악당이 포함되어있다. 2010년에는 우리의 것, 우리의 소리를 찾아 경기도 국악당을 찾는 이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오시는 길

공연문의:031)289-6400 홈페이지 http://www.ggad.or.kr/

말의 귀를 닮은 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풍경

용인문화원 문화유적답사…신비로움 온 몸으로 느껴

봄에는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돛대와 같다고 해서 〈돛대봉〉, 여름에는 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형상이 푸른 숲과 바위가 어우러져 마치 용의 뿔과 같다고 해서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과 바위의 형상이 말귀와 같다고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하얀눈 위에 솟은 봉우리가 먹물을 찍은 붓과 같다하여 〈문필봉〉….

진 숙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과장

늦가을의 아쉬운 흔적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전국문화유적 답사지인 전북 진안을 향해 일찍 출발했다. 역시나 아직도 붉은 단풍을 흔들어 대는 산바람은 부푼 마음에 달려온 용인문화원 답사객들을 반가이 맞이해 준다. 항상 멀리 답사를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하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 한 자락의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키느라 눈빛이 빛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다. 모든 것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어서 어서 산에 올라가 자연을 느껴보자.

마이산의 전설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산을 하나 지적하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진안에 있는 마이산(馬耳山)을 가리킬 것이다. 마이산은 그 이름만큼이나 특이한 산세를 갖추고 있고, 산 여기저기가 볼거리로 가득하다는 김국장의 말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 디딜 때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움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산을 올랐다.

아득한 옛날 남녀산신이 살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남신은 한밤중에 승천하자고 했고 여신은 무서우니 날이 새면 떠나자고 했다. 결국 여신 말을 듣고 새벽에 떠나려다 동네 아낙네에게 들켜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 난 남신이 여신에게서 두 자식을 빼앗고는 발로 차버렸다. 그 후 남녀산신 가족은 그대로 주저 앉아 바위산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산을 북쪽에서 보면 동편의 아빠봉에 아기봉이 둘 붙어있고, 서편의 엄마봉은 죄스러움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반대편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해발 673m의 마이산은 전설속의 암마이봉과 숫마이봉 두개의 바위봉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바위봉의 모습이 말의 귀와 흡사하여 마이산(馬耳山)이라 불리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장수로 있을 때 어느 날 꿈에 산신이 나타나 금척(金尺)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금척으로 장차 삼한의 강토를 헤아려 보라."

그 후 이성계는 고려 우왕 6년(1380) 전라도 운봉에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가 침입하자 한걸음에 달려가 무찌르고는 돌아오는 길에 마이산을 보고 그 모습이 꿈속에서 받은 금척을 묶어 놓은 듯 하다 해서 '속금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는 30일 동안 마이산에서 기도하며 건국의 대의를 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성계의 이 씨가 목성에 해당되는 금과는 상극이므로 세상의 '금' 기운을 묶어 주라는 뜻에서 '속금산(屬金山)'이라 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전설은 이성계가 왕이 된 후 금강산에 금자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매우 꺼려하여 그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어찌 되었든 태조는 자신이 '속금산'이라고 명명한 이 산을 두고 이렇게 시를 지었다

동으로 달리던 천마 이미 지쳤는가
갈길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구나
연인(내시)이 몸통만 가져가고 두 귀는 남겼는가
봉우리 이루고 하늘로 솟아 있네.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은 1413년 10월 이곳에 와서 부왕이 남긴 시를 보고 마이산이라 개명했다. 그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일을 기념하여 숫마이봉 아래에 있는 은수사(銀水寺)에서는 매년 10월 11일 오후 마이산 제단에서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마이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 마이산 제단은 1990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진안군이 복원하여 축조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전설은 조선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로 궁중의 연희악이나 종묘 제악에 사용되었던 '몽금척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진안군은 매년 10월 진안 군민의 날 '몽금척무'를 공연하고, 백일장 및 사생 대회, 좌도 농악 공연, 향토 미술인 초대전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 '몽금척요'는 태조2(1393년) 관습도감이었던 정도전이 가사를 지은 것이다. 태조가 개국한 후 관제개혁, 법령제정 그리고 신도건설 등 할 일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무·악에 관해서는 거의 이전 왕조 즉 고려의 것을 그대로 썼다. 그러나 새 임금의 장수를 빈다거나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사를 짓고 음을 붙여 그에 맞는 새롭게 창작했는데, '몽금척요'는 그 중에서 최초의 것이라고 전해온다. '몽금척요'의 가사 중에서 마이산을 노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산의 사면은 모두 돌로 우뚝 솟아 돛대와 같은데, 그 아름다움이 그지없이 좋도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이산은 계절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는데 봄에는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돛대와 같다고 해서 <돛대봉>, 여름에는 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형상이 푸른 숲과 바위가 어우러져 마치 용의 뿔과 같다고 해서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과 바위의 형상이 말귀와 같다고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하얀 눈 위에 솟은 봉우리가 먹물을 찍은 붓과 같다하여 <문필봉>으로 불린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러하다.

신비 그 자체 탑사(塔寺)

마이산의 천왕문인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을 지나 남쪽 기슭으로 내려가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탑사(塔寺)가 나온다.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로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두커니 탑들만 바라보았다. 마이산이 자연이 만든 걸작이라면 탑군은 인간이 만든 걸작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다. 마이산 탑사의 입구에서 대웅전까지 가는 길에는 탑군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전라북도 지방기념

물 제 35호로 지정된 마이산 탑군 중에서도 주탑인 천지탑은 부부탑으로 2기로 되어있고 높이는 13.5m이고 남과 북으로 축조되어 있었다. 이갑룡 처사가 평생을 바쳐 쌓았다는 탑으로, 인간의 백팔번뇌를 상징하여 108기를 쌓았다는데 지금은 80여 기만 보존되고 있다고 했다.

효령대군 16대손 이갑룡 처사가 수행을 위해 마이산에 들어와 솔잎으로 생식을 하고 수도하면서 신의 계시를 받아 쌓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 돌들은 30여 년 동안 인근 30리 안팎에서 돌을 날라 기단 부분을 쌓았다고 하니 더 더욱 대단했다.

이처럼 중생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정성껏 석탑을 쌓은 이갑룡 처사의 이야기에 과연 우리는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본다. 또한 이 탑의 축조기술은 어떤 유명한 기술이 아닌, '막돌허튼'식이라 한다. 하나의 돌을 쌓는데 하루씩 걸리면서 불법으로 쌓은 그의 축조법은 재미있는 이름 속에도 견고함이 숨어있고, 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이 적용되어 있다하니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막돌 허튼식으로 정성들여 쌓아갈 때 더욱 아름다우며 튼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세계최대의 타포니 지형

마치 콘크리트 더미처럼 보이는 마이산의 생성 과정 역시 대단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마이산의 봉우리를 이루는 바위는 사질역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굳은 바위를 말한다. 사질역암은 지구상 어디에나 흔히 볼 수 있는 암석이다. 그러나 바닷속이 아닌 내륙 지방인 이곳에 어떻게 역암층이 형성 되었을까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의 탑사 자리가 옛날에는 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는 7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쏘가리를 닮은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화석들이 설명하는 바는 지금의 마이산 자리가 먼 옛날에는 호수나 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백악기에 이르러 지층이 솟아오름으로써 지금의 고지대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 마이산 역암은 기존에 있던 화강암질 편마암이 백악기 말 주변의 화강암류의 분출에 따라 솟아오른 후 흙과 자갈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본래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화강암질 편마암 지역이 침식에 약하여 높이 350m지대의 진안 분지가 형성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고 침식에 강한 마이산 역암 지역이 더 높게 잔존하여 기복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마이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지질학적 현상을 보면 암마이봉 남쪽에는 마치 공룡알로 찍어 누른 듯한 커다란 구멍들이 패여 있다. 내외부 열의 차이로 생기는 이러한 풍화 현상을 타포니라고 부른다. 이 타포니는 동, 서, 북쪽에는 없고 오직 남쪽 면에서만 볼 수 있다. 아마도 태양열로 인해 생긴 현상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마이산의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타포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으로 현재 일본 각 대학의 지구과학 강의에 이 마이산 타포니 사진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한다.

후백제의 왕 견훤릉

마이산의 감동과 탑사의 신비로움 그리고 인삼으로 빚은 동동주로 온정신을 빼앗긴 채 단숨에 뚝딱 점심을 먹고 한 시간쯤 버스가 달려간 곳은 후백제의 본거지였던 논산이었다. 후백제의 왕 견훤릉을 보고자 찾은 논산에서는 한참이나 이정표를 찾느라 헤맸다. 짧은 후백제의 역사 때문인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를 없애려고 했던 반인륜적인 행각 때문인가 어설픈 이정표가 답사객들을 애타게 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구릉지대에 있는 왕릉은 그동안 찾는 이가 없었다는 흔적이 역력했다. 드라마 '왕건'이 방영된 이후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지만 가을 낙엽이 두둑하게 쌓여 사부작 사부작 능을 오르는 계단이 미끄럽기까지 했다. 936년 9월 후백제가 고려에 멸망한 뒤, 세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가엾은 견훤은 그해 9월 능창으로 숨을 거두고 완산(전주)이 바라보이는 논산에 묻혔다. 1981년 충남도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왕릉은 봉분직경 9m, 높이 4.5m로 다소 초라하나 대대손손 왕위를 계승하려 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옛 영웅을 드라마 속 모습과 함께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다.

달콤함을 사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간다

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한 일자리 마련 '쿠키트리' 주렁주렁

고림동에 개관한 용인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장애인 및 용인시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훈(館訓)인 '섬기는 마음으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김지혜 | 용인문화원 향토연구원

"섬김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빨간색 레이더를 달고 노란색 졸라맨 옷을 입은 우주에서 온 아이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섬김이'다. 섬기는 마음으로 용인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진단과 치료, 교육, 직업훈련, 재가복지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만든 캐릭터인 것이다. 용인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관훈이 바로 '섬기는 마음으로….'이니 '섬김이'가 왜 섬김인지 알 것도 같다.

2005년 6월 17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개관한 용인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장애인 및 용인시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훈(館訓)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는 용인시장애인 복지관 모두가 '섬김이'인 것이다.

섬김이의 가슴에 있는 마크는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사회가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더 나은 통합사회를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의 CI로 이는 곧 '섬김이'가 가슴 깊숙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다.

섬김의 마음이 주렁주렁 쿠키트리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온갖 장식과 선물이 주렁주렁 달렸을 거 같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진다.

용인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우측에 위치한 쿠키트리란 이름의 건물은 언듯 보면 매점 같다. '이름 참 잘 지었군! 쿠키가 주렁주렁 달렸음을 상상해 군침이 돌도록 하는 이름이군! 갈 때 좀 사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장애인들이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겠군.' 삼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이곳 '섬김이'들은 이곳의 수익금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단다.

이런 고결하고 진취적인 '섬김이'의 뜻을 몰라보고 매점으로 보다니 일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게 확실하다 생각하며 건물의 안쪽을 둘러보니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위해 부스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 유기농 우리 밀을 주원료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땅콩칩쿠키, 초코칩쿠키, 샤브레쿠키, 튀일(전병)류, 만주류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착한 가격 3,500원에서부터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는 28,000원까지 다양하다.

맛나고 몸에도 좋은 쿠키도 먹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힘도 실어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터전도 마련해 주니 쿠키 트리는 마음의 크리스마스트리다.

사랑나누기 김치나누기

불교에서는 가장 큰 보시[布施]로 먹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친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예수께서는 빵을 보이며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는 나눠 주셨다하고 이슬람교도는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며 배고픈 이들의 고통을 경험하고 돈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풀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이곳 '섬김이'들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복지관 뒷마당에서 나눔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을 듬뿍 담아 벌건 김치를 버무렸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에는 용인시장

애인복지관과 자매결연 한 신세계 이마트 용인점에서 총각무 450단을 후원하였다.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김장김치를 재가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뻐하는 그들을 보니 음식은 곧 정성이라 대장금 부럽지 않은 맛까지 기대가 된다.

"Happy Kids Diary-행복한 Book Story"

지난 11월 11일(수) 복지관 강당에서 2009년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학령기 장애아동이 만드는 행복한 Book Story"Happy Kids Diary"』"출판 기념회 및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애아동들이 만든 작품이라는데 여느 Book ART 작가가 만들었다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완벽하다. 이곳을 알고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은 참 행복한 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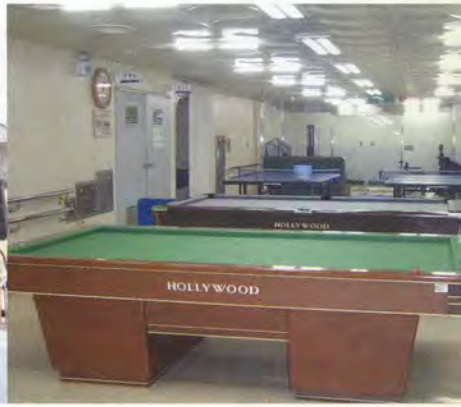
이외에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연 교수)은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을 주제로 의사소통 걸림돌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연습하여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또한 계간지(봄, 여름, 가을, 겨울호) <사랑 고리> 를 발간하여 복지관 활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직원 간, 봉사자 간, 가족 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궁금한 건 못 참아!

궁금한 건 못 참는 이들은 한번 나서 보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궁금한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954-1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TEL : 031-320-4800)으로 친히 옥체를 이동하거나 홈페이지 www.heart4u.or.kr를 방문하여 보도록 하자. 마음은 있으되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땐 후원자가 되어도 좋겠다. 일반후원의 방법도 있고 이마트 마일리지(아쉽게도 용인점, 동백점만 가능)기부로 복지관을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 얼만지 기억도 못하다 유효기간 지나버려 아쉬워 말고 이 겨울이 가기 전 '섬김이' 들을 위해 산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난 달콤함을 사러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간다.



〈시설소개〉

·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본 복지관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평일 9~18시까지(체력단련실과 체육 활동실은 20시까지) 토.일요일(체력단련실과 체육활동실만) 9~1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F
정보화교육실, 체력단련실, 강당, 샤워실 · 탈의실, 희망실, 방송 · 전산실 작업치료실,

· 2F
상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심리안정실, 언어치료실1 · 2, 진료실, 물리치료실, 바우처미술치료실, 나리실, 하늘실, 바우처언어치료실, 관장실, 통합사무실

· 1F
안내데스크, 주간보호센터, 특수교육실, 개별학습실, 미소실, 부모대기실, 정보검색대, 휴게실, 관리실, 직업적응훈련실

· B1
체육활동실(탁구, 당구), 누리실, 아람실, 식당, 전기 · 기계실

〈사업소개〉

▲ 기획홍보팀-정보제공사업(정보화기초반, 자격증반, 동영상제작교육, 손으로 말하는 정보화 교육, 정보검색대 운영, 복지정보제공) 사회교육 사업, 홍보계몽사업, 기타 직원대상 관리교육및 후원개발지원관리

▲ 상담지원팀-상담지도사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치료, 가족, 기타) 치료바우처사업

▲ 교육지원팀-사회교육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외부지원사회심리재활사업

▲ 건강관리팀-의료재활사업(진단 및 평가, 채료, 기타),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기타(두리하나건강걷기 대회)

▲ 지역복지팀 - 재가장애인 복지사업(한방무료진료,차량무상점검, 재활보조기구지원),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문화산책, 나눔도예, 생활원예, 바둑, 손뜨개교실, 낚시동호회)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나눔이웃개발 및 관리)자원봉사개발및관리, 사회봉사, 후원지원

▲ 재가복지봉사센터-일상생활지원사업(가사지원, 가정시설지원, 목욕지원, 밑반찬지원, 외식지원, 외출지원, 이미용지원, 김장 김치 지원) (자료=홍보팀 박수진 사회복지사)

※기타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속 술 익는 시간이 곧 '인생살이'

4개의 양조장…용인의 막걸리 대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몰아친다는 막걸리 붐이 우리 용인 지역에도 가득 넘치기를 기대해본다. 그때는 용인에 있는 네 군데 막걸리공장으로도 수요를 대기 벅찰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을영 | 용인문화원 향토연구원

용인5일장과 막걸리

용인 5일장에 막걸리를 만나러 나갔다.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진 금학천엔 가을이 지나 겨울로 들어서며 부는 바람이 갑절은 차갑게 부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매서운 바람 탓인지 체감온도가 쭈욱 내려가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 난로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시장의 생선가게의 동태며 오징어를 만지는 상인들의 손에도 얼음이 묻어 난다.

그래서인지 천변에 자리 잡은 작은 빈대떡 집의 기름 냄새가 더욱 고소하게 느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았나 보다. 바람을 막아선 유리창 너머로 김이 오르는 그 집에는 지글지글 방금 구워 낸 빈대떡과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로 만원이다.

아버지들의 시간 속에 막걸리가 자리 잡고 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옛 시절 이야기를 하나 보다.

나도 한자리 잡고 앉아 그 분위기를 엿듣고 싶어 고개를 디

금학천과 5일장

밀어 보다 문전에서 퇴짜를 맞았다.

"자리 없어요!"

오홋, 그럼 다른 데로 가는 수밖에. 어디로 갈까?

순대골목의 막걸리

순대 골목에 가면 막걸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따뜻한 온돌방에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

기다란 골목의 순댓집 마다 찬바람을 피하려고 온 듯한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입맛도 각색이라지만 그래도 맛이 있는 집이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자리가 하나 보이기에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오일장에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가족들이 많이 보인다. 나이 지긋한 부부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네 식구도 있다. 모처럼의 일요일에 옛 직장 동료인 듯 한 사람들이 장에서 만나 순댓집에 와서 막걸리 한 병 시켜 놓고 세상사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야말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오래 오래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는 술이 막걸리 인 것 같다.

막걸리의 효능

막걸리에는 필수아미노산(체내에서 합성 할 수 없는 단백질) 중 트립토판과 메티오닌 성분이 있어 체중 유지를 돕고 지방 저장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신라대 막걸리연구소에서 2001년 인체 암세포주에 대한 성장 저지 효과 및 흰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막걸리 농축액이 암 예방과 손상된 간세포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 장 내에서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산균이 요구르트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비교도 안 된다. 최근에 일본에서까지 유행한다는 막걸리 붐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막걸리 춘추전국시대!

쌀 막걸리가 최고였던 때가 있었다. 그중에도 인삼막걸리를 아주 일품으로 쳐주던 때도 있었다. 아마 인삼이 가지는 이미

원삼막걸리

백암막걸리

지를 잘 활용한 탓이리라.

어느 광고 카피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이 이젠 막걸리의 변신이 무죄가 아닐까. 배, 사과, 딸기, 복분자, 자주고구마, 등을 첨가한 막걸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끝없이 변신한 막걸리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맛에 외국인들도 반한 탓일까?

한 항공사의 기내식에 막걸리가 포함되어 이제는 구름 위에서 막걸리를 먹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좁은 기내에서 트림할 까봐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행히 트림을 하게 하는 유해균은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로 배제 시킨다고 하니 이제는 구름위의 신선(神仙)이 되어 버린 착각에 빠져도 좋을 듯하다.

그 여세를 몰아서 프랑스의 햇 포도로 만든 보졸레누보를 유기농 햅쌀로 만든 막걸리누보가 이겼다고 한다. 그것도 다섯 배 이상으로, 그 수요층은 이 삼 십대 젊은 여성들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용인의 막걸리

용인시를 대표하는 막걸리는 백암양조장과 원삼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유명하다. 또 지난 2002년에 도시계획에 밀려 용인주조와 합쳐진 포곡읍 금어리 용인합동양조장과 신갈합동양조장에서도 막걸리를 내고 있다. 4개의 양조장이 용인의 막걸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영화를 되살리기에는 아직도 지역 막걸리들의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농사가 제일이던 시절이 호시절이었다고 했던가?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때에 노동의 피곤함을 잠시 잊게 해 주던 청량음료 같던 막걸리는 이제 아주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양조장 주변에 건물들은 하나 둘씩 변해 현대식 건물로 변해가는 데 양조장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다. 아니, 돌보는 손길이 줄어 오히려 퇴락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곱게 익어가는 막걸리 짙은 향이 와락 달려드는 술도가를 기대하고, 바쁘고 왁자지껄하게 사람소리가 들릴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포곡읍 금어리에 있는 용인합동양조장을 찾아 갔다.

백암양조장

원삼양조장

용인양조장

금어리 어매실 1길에 자리 잡은 용인양조장은 슬레이트 건물로 규모가 제법 컸음을 짐작하게 해 줬지만, 지금은 건물의 작은 공간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었다.

주인이 바뀌어서 이곳의 내력을 잘 모르겠다는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묵묵히 막걸리를 포장 하는 아주머니의 손놀림에 활기 잃은 농촌의 고단함만 묻어나는 것 같았다.

잠시 지켜보다 돌아서 나오는 나에 눈에 1977년 12월 15일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커다란 항아리 다섯 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자신의 할 일을 잃고 마당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흘러간 막걸리의 옛 영화를 보는 것 만 같다. 술맛은 항아리가 결정해 준다는 데 이제는 자동화 기계로 대처해서 술을 빚는 장인의 손맛이 없어진 것 같아 씁쓸한 아쉬움만 더한다.

그래도 우리 곁에 아직까지 용인 막걸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위안을 하며 발길을 돌렸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몰아친다는 막걸리 붐이 우리 용인지역에도 가득 넘치기를 기대해본다. 그때는 용인에 있는 네 군데 막걸리공장으로도 수요를 대기 벅찰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겨울바람이 차갑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화롯가에서 둘러 앉아 갓 버무린 김장김치에 막걸리 한 사발이 더욱 그립다.

용인과 함께한 2009년 가을 · 겨울 돌아보기

■ 경기도민속예술제

• **일시** : 2009. 10. 4~5(2일간)

• **장소** : 용인종합운동장

• **내용** : 경기도 시 · 군 민속놀이팀의 경연대회인 제17회 경기민속예술제가 10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29개 시 · 군대표팀이 참가해 놀이, 극, 무용, 민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30개 시군 홍보부스 및 먹거리 장터도 함께 운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기우제를 소재로 한 동두천시의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가 차지했으며, 용인 대표로 출전한 죽전 줄보맥이민속놀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09 세계인천도시축전 답사

• **일시** : 2009. 10. 17

• **장소**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 **내용** : 문화원 임원 및 회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인천차이나타운 등을 관람하면서 화합과 유대의 시간을 가졌다. 일정은 항구도시 인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민사박물관-인천자유공원-인천차이나타운,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 이번 행사는 '내일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계속되었다. 문화가족들에게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지구화의 물결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국

제적 위상과 세계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용인문화원 실버합창단 창단

• **일시** : 2009. 9. 28

• **장소** : 문화예술원 1층 연습실

• **내용** : 지난 9월 28일 10시 문화예술원 소연습실에서 이종민 원장, 손대영 부원장,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지역 노인들에게 합창음악을 통해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선용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단원은 60세 이상 남녀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원 소연습실에서 매주2회 연습한다. 지휘자는 공채로 임명된 송원석 선생님과 반주자는 피아니스트 유민주 선생이다.

■ 용인문화원-진천문화원 자매결연

• **일시** : 2009. 11. 25

• **장소** :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

• **내용** : 지난 11월 25일(수) 11:00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문화원과 진천문화원이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종민 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30여명과 진천문화원 남명수 원장등 30여 임원 및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내빈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 오용원 경기도지회장, 장현석 충청북도지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식전행사로 '생거진천 사거용인'을 테마로 한 심규순 무용가의 안무로 창작 무용극을 영상으로 감상하였다. 용인과 진천은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이 전해오듯 지리적, 정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 문화원 참석자가 인사를 나누고 각 문화원의 연혁과 사업소개로 상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어 자매결연 협정서를 낭독하고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남명수 진천문화원장,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공동서명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다.

용인문화원은 기념 벽시계를, 진천문화원은 종박물관에서 제작한 모형 에밀레종을 기념품으로 전달하였다. 용인과 진천문화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시계의 흐름과 에밀레종의 울림이 동시에 퍼져나아 갈 것을 기대한다.

■ 용인 600년 기념사업회 결성

• **일시** : 2009. 11. 3

• **장소** : 문화원 회의실

• **내용** : 태종 14년(1414)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명칭이던 용구현과 처인현을 병합하고 용구의 '용' 자와 처인의 '인' 자를 합쳐 "용인"이라 칭하였는데 오는 2014년이면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600년을 맞게 된다.

다가올 용인600년의 미래를 여는 이 사업은 전년도 12월 출범식에 이어 지난 11월 3일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기획 · 홍보분과 위원회(위원장 홍순석), 사료정립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양화), 사적지정비 및 문화콘텐츠개발분과 위원회(위원장 강진갑), 기념관 및 조형물건립분과 위원회(위원장 김동호), 기념공원 조성분과 위원회(위원장 조길생)이다.

기초적인 시민의식을 조사, 분석한 다음 전문가적 의견을 종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미래 용인을 아우를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600년을 맞아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자랑스런 용인상을 정립하여 아름답고 비젼있는 용인을 꿈 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회 용인시 서예공모전

• **전시기간** : 2009. 11. 30~12. 05(6일간)

• **장소** : 용인문예회관 전시실

• **내용** : 매년 개최되는 용인시 서예휘호대회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대회가 아닌 '서예공모전'으로 변경 실시하였다. 예년에 비해 작품수나 실력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주위의 평이다. 참가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며,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사군자포함)이다. 심사는 외부 중견서예가 3인을 초빙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였다. 일반부 대상은 한문부문에 홍용성(54년, 용인시 양지면 소재 거주)님이, 학생부는 한문에 최정윤(한문, 정평중학교 3-3) 학생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입선이상 작품은 표구나 배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 작품은 총101점으로 일반부 52점, 학생부49점이다.

전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문예회관에서 전시되었다.

용인시 세거문중협의회 출범식

• **일시** : 2009. 12. 16

• **장소** : 향토문화연구소 2층 강당

• **내용** : 지난 11월 1차 준비모임에 이어 세거문중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세거문중협의회는 용인관내 400년이상 세거한 문중 50여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참석한 50여 문중의 대표들과 종인들은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소개를 통해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거문중협의회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계획을 수렴하였다.

중요한 안건으로 정관안에 대한 채택과 함께 차후 수정보완토록 하였으며, 덕수이씨 이재완님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의에 이어 2부 순서로 중요무형문화재 56호 종묘제례 보유자인 이형렬선생을 모시고 전통제례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가졌다. 차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문중 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각 문중들이 보존해 오고 있는 사료와 유적들을 조사하고 문중인물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인의 문중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속에 활동한 인물들의 업적과 사상을 후세에게 전수하는 계기를 만들것으로 보며, 나아가 용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가족 송년행사

• **일시** : 2009. 12. 23

• **장소** : 마평동 희성웨딩문화원

• **내용** : 문화원 임원 및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09 용인문화원 송년의 밤 행사를 하였다. 이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시점에서 평소 문화원을 깊이 성원해 주는 임원, 문화위원, 문화학교 수료생등 160명이 함께 어우러져 송년의 밤을 훈훈하게 장식하였다.

축하공연은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선보였으며, 판소리 호남가를 시작으로 한국무용의 축원무, 댄스스포츠의 차차차, 우리춤 체조의 도라지, 경기민요의 매화타령,군밤타령, 선소리산타령의 뒷산타령, 장기타령으로 송년회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어서 2009년 문화원 1년을 총결산하는 동영상을 관람하였다. 문화원합창단을 창단부터 현재까지 8년간 지도해 온 김정승 지휘자와 동양화교실 정태균 강사에게 문화원장의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만찬과 시간과 함께 다사다난해했던 송년행사를 마무리했다.

2009년 마지막 태양

2009년을 마무리 하는 날. 용인의 진산인 석성산을 넘어가는 태양이 세월의 흔적을 아쉬워하며 산을 넘어가고 있다. 새로운 2010년을 기약하며 희망을 속삭이는 태양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한다.

김호경〈사진〉

발행인 이종민 문화원장

편집자문 김장호 이시우 손대영 부원장

편집위원 정양화 향토문화연구소장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이종구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진 숙 연구위원
이을영 연구위원 송무경 연구위원

발행처 용인문화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031)335-2033 팩스 : 324-9634
이메일 : yici133@hanmail.net

기획편집 서정표

편집디자인 안혜숙

제작 도서출판 굿피플
문의전화 : 031)336-8585

용인문화원
031)324-9633 | 324-9600

용인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모집

내고장 용인의 문화향기가 피어나는 곳! 용인문화원의 문화학교 강좌등록을 하시면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실명	수강장소	교육시간	교실명	수강장소	교육시간
동양화(초급)	문화예술원3층	금 13:00 ~ 15:00	유화교실	향토문화연구소3층	화 10:00 ~ 12:00
동양화(중급)	문화예술원3층	금 15:00 ~ 17:00	수채화교실	향토문화연구소3층	금 15:00 ~ 17:00
서예교실(초급)	문화예술원3층	목 13:00 ~ 15:00	우리춤체조	문화예술원1층	목 14:00 ~ 16:00
서예교실(중급)	문화예술원3층	목 10:00 ~ 12:00	선소리산타령	향토문화연구소3층	수 10:00 ~ 12:00
규방공예(오전)	문화예술원3층	화 10:00 ~ 12:00	사군자교실	문화예술원3층	금 10:00 ~ 12:00
규방공예(오후)	문화예술원3층	화 13:00 ~ 15:00	한지공예(신규)	문화예술원3층	수 10:00 ~ 12:00
한국무용	문화예술원1층	화 10:30 ~ 12:30	혼성합창단	문화예술원1층	월금 10:00 ~ 12:00
경기민요	문화예술원1층	화 14:00 ~ 16:00	스포츠댄스	문화예술원1층	수 10:00 ~ 12:00
남도민요	문화예술원1층	목 12:00 ~ 12:00	실버합창단(신규)	문화예술원1층	월금 13:00 ~ 15:00

※ 본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월 2만원이며 수시 접수합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은 수강 인원이 7인 미만일 경우 폐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ycc50.org

용인문화

Yongin Culture Magazine 2009. vol 11